

‘침수 피해’ 복구 주민들 의료비 경감 ‘희소식’

區 ‘재난지수 300 이상’ 주민 중 사망·실종 유족 등에 자격 부여 본인 부담 환급...20일부터 모집

광주 북구가 올여름 ‘괴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 S) 기준 재난지수 300(재산 피해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이의 유족,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당사자 등이다.

이 같은 침수 피해 주민에겐 의료급여 1종 자격이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진찰, 입원, 수술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부터 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된 지난 7월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병원·약국을 이용하고 납부한 본인 부담금 중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이 3개월 늘어나 다음 해 1월15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총 12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5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또 모집 시작일부터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과 개별 유선·문자 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여름 발생한 침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 급여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에서 국내 최대 테마파크 롯데월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롯데월드 퍼레이드 팀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금남로 1-3가를 행진한다. 사진은 롯데월드에서 진행된 퍼레이드 중 일부. <광주동구 제공>

롯데월드 퍼레이드 금남로서 펼쳐진다

오는 18일 총장축제 행진의 날

‘나이트 불꽃놀이’ 피날레 장식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의 퍼레이드 총장축제 기간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오는 18일 ‘행진의 날 I’에 초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당일 롯데월드 퍼레이드 팀은 오후 7시부터 금남로 1-3가를 행진한다.

관악그룹인 롯데월드 마징어밴드가 선두에서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린다.

그 뒤는 매직포레스트 플라워퀸·보석세공사, 월드오브라이트 토피어리 캐릭터 등과 롯데월드 캐릭터 및 동화 속 주인공으로 분장한 전문 연기자들이 함께한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롯데월드에서만 볼 수 있는 나이트 불꽃놀이 재현되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불꽃놀이 후인 오후 9시부터는 시민 참여형 야간 프로그램인 ‘총장 로드 나이트’가 시작된다.

광주 출신인 전 달사벳 멤버 DJ 수빈 등의 출연자들은 반짝이 가면과 야광 소품을 착용한 관람객들과 총장로 1가-웨딩의 거리-천변우로-중앙로-총장파출소-주무대로로 이어지는 약 1.5km를 함께 걷는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축제의 퍼레이드는 ‘추억의 동화’라는 주제를 가장 크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과 야간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선·이주민 어울림 ‘광산세계야시장’ 팡파르

오는 18일 월곡동서 19개국 참여

세계의상 퍼레이드·문화공연 ‘다채’

광주 광산구는 12일 “선·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세계의 맛과 멋의 축제 ‘2025 광산세계야시장’이 오는 18일 월곡동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25 광산세계야시장을 맞아 월곡동 생활권 도로(하이마트-하남농협 산정지점)는 오후 2-10시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된다.

올해 축제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튀르키예 등 19개국 공동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라별 공동체가 함께하는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아오자이 논라춤 등 세계문화 공연 ▲개그맨 김용명과 함께하는 선·이주민 파워공감 토크쇼 ▲고려인마을과 월곡시장을 탐방하는 월곡 골목여행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계놀이·전통의상 체험 공간, 민백 힐링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80여개의 먹거리 공간과 체험 공간에선 대화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주성학기자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세계야시장은 선·이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특별한 축제”라며 “이번 행사가 광산구를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기자

남구, 성인문해 글짓기 대회 개최

광주 남구가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의 성취를 응원하고자 성인문해 글짓기 대회를 연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는 남구노인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주월2·진월·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만학도 어르신 50여명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90여명의 어르신 한글 초·중급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대회는 ‘우리말 글짓기’와 ‘우리글 바로 쓰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남구는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특별상 3명 등 총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다음 달 열릴 남구 평생학습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주성학기자

서구, 주말·공휴일 ‘공유차량 무상 대여’

취약계층 대상 이동 지원 서비스

승차차 등 2대...월 2회 신청 가능

광주 서구는 12일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착한서구 공유차량’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동 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공유를 통한 생활

밀착형복지서비스를확산하기위해마련됐다.

운영 차량은 11인승 승합차 1대와 5인승 승용차 1대 등 총 2대로,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19세 미만 1명 이상 포함)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은 가구당 월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

속된 공유일에는 최대 5일간 이어서 쓸 수 있다. 대여는 무료이나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이용 희망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회계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 우선순위는 기존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이며, 승인 여부는 신청일 기준 5일 전까지 문자로 안내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다양한 ‘착한 동행’ 사업을 추진해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